

“새 성장동력 기회…공정 성장 문 열어야”

李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

“양극화·불평등 완화…모두 잘 사는 세상”

“자본시장 정상화 코스피 5,000시대 가능”

“첨단산업 투자…재생에너지 전환도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추기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4면

특히 그동안 보수 진영이 주도권을 쥐고 있던 어僭다인 ‘성장’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정’이라는 개념을 융합시켜 진보진영이 주장해 온 양극화·불평등 완화를 달성하겠다는 지향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 방향에 대해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기업도 제대로 성장·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내내 ‘공정’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모두의 협력 없이

이를 수 없다”며 “공정하게 노력해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 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 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득권과 특권, 세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겁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다”며 “하나 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

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자”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도 보수·진보 진영이 각각 주도해온 담론인 첨단산업 투자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조속히 완료해 기후 위기와 RE 100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안보 분야 정책에 있어서도 “진보나 보수나가 아니라 국익이나 아니나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며 “국의 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하다”며 “평화가 밥이고 경제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강원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26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광양만권 유통산단 소재 철강·이차전지 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전남도 제공〉

율촌산단 철강·이차전지 기업 애로 청취

강위원 경제부지사, 첫 산업현장 방문

릴레이 민생살핌 행보…대응전략 모색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산업 현장을 찾아 위기 상황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강 부지사는 26일 (주)세아제강과 포스코필바리, 투류솔루션 등 광양만권 유통산단의 철강·이차전지 핵심 기업을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릴레이 민생 살핌행보를 시작했다.

릴레이 민생 살핌행보는 강 부지사가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통하는 ‘직면의 리더십’을 통해 위기 상황을 풀어가기 위한 것이다. 보고서보다 현장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강 부지사는 이날 취임 후 첫 민생 살핌행보로 철강·이차전지 기업을 방문해 ▲철강산업 글로벌 수요·문화 ▲미국의 고을 관세 부과 ▲중국산 저가재 유입 ▲이차전지 소재의 가격 경쟁력 하락 등 복합적인 산업위기 상황에서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철강기업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원가 부담, 수출구 보호무역주의, AI 기반 스마트 제조 전환 필요성 등을 견의했다.

이에 대해 강위원 부지사는 ‘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저탄소 설비 전환, 스마트 제조체계 구축,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가기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1면 ‘민선 8기 4년차…’서 계속

미래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생태계를 조성해 ‘벤처 창업하기 좋은 전남’을 만들고 전남의 고유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K-컬처 미래 트렌드’를 창출하는 전남’ 구축에도 속도를 냈다.

‘어디서든 1시간대 전남’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전라선 고속화, 서해안철도, 우주고속도로, 경전선, 전남형 트램 등 서남권

과 동부권을 아우르는 광역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 약속대로 중앙부처와 전남도·광주시·무안군이 함께 대통령령 산하에 별정부 TF를 구성, 정부 차원의 획기적 국가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곡성과 영광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햇빛·바람·연금 등 에너지 기본소득과 전

남만의 지속 가능한 자주재원을 마련해 전남형 기본소득을 확대한다. 조부모 돌봄,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등 전 생애 주기 복지체계를 실현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을 기본소득 선도 지역으로 만들 것”이라며 “도민의 꿈이 현실이 되고 도민의 행복이 전남의 기쁨이 되는,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더 크고 위대한 전남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평가 9%, 부정 평가 2% 각각 상승한 수치다. 국정 운영 신뢰도에 대한 질문에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63%,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로 각각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45%, 국민의힘 지지도는 20%로 집계됐다.

양당을 제외한 정당의 지지도는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 순이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멤버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8.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본부조사의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진수 기자

현재소장 김상환·현법재판관 오영준 지명

국세청장엔 임광현 민주당 의원



김상환

오영준

임광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현법재판관 겸 현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상환

현법재판관

현법